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6월 21일**

나를 보내사 사61:1-7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당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에게는 운명과 저주가 임해 있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자리를 잡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신 문제가 와도 영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언약을 바로 알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인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피는 뱀의 머리를 깨는 권세가 있고 저주와 재앙에서 인간을 해방합니다. 하나님을 24시간 누릴 수 있게도 합니다.

이 언약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영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담고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언약 잡은 예배를 지속하는 자에게 무너지지 않을 사단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알고 그 언약으로 사람을 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열쇠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 없이 3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잡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응답하시는 현장을 보고 증인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우리도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1. 나를 보내사

1)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2절은 은혜의 해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보복의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2) 3절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고 전쟁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약속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3)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 그리고 4절은 오랫동안 황폐되고 무너져 있던 성읍을 다시 일으키시며 5절 외인이 서서 너희의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5)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한 약속입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잘 보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첫째는 정확한 복음 이해입니다. 요셉이나 모세는 부모를 통하여, 다윗은 깊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평생 언약이 되었습니다.

6) 두 번 째 이들은 전부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며 하나님과 뜻이 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는 복음과 함께 아주 중요한 근본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귀합니다

7) 세 번 째 이들의 특징은 수시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은 항상 이들의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응답을 누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인생을 사는데 기본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할 기초이며 아무리 연약해도 이 3가지만 성공하면 누구든지 성경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8) 그리고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은 다 가지고 있으므로 복음을 조금만 진심으로 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9) 아브라함과 롯은 이 3가지의 차이에 의하여 인생 결과의 차이가 왔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 모세와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들의 차이도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도 이 3가지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은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10)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달하고 어디에든 갇혀 있는 자에게 해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이 고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에 가슴이 통하여 하나님과 뜻이 하나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면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매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11) 그리하여 수시로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기적을 보고 그 응답으로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예사로 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더 깊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더 깊이 뜻이 통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